

무배우자 남성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병주*, 김건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ffects of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on the Prostitution Attitude of Spouseless Men

Byeong-Joo Jeon*, Keon-Hoo Kim**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w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남성 286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 태도는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 참여 여부, 표현적 성 대처행동,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비공식적 억제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는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무배우자 남성의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배우자, 성 대처행동, 성매매, 범죄 억제, 성매매 규제법률

Abstract This study used 286 men living without a spouse in the regions of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to review the effects that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have on the prostitution attitude. During this process,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actor, ‘perception of crime deterrence’, was verifi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found in study subjects was higher than average, showing that they had a positive perception. Second,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were identified to b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employment status, social participation, sexual coping behavior, official and unofficial deterrence as part of crime deterrence. Third, official deterrence as part of crime deterrents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sexual coping behavior and prostitution attitud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practical measures to deter prostitution of spouseless men.

Key Words : Spouseless, Sexual Coping Behavior, Prostitution, Crime Deterrence, Punitive Laws

이 글은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15)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다.

Received 6 December 2014, Revised 30 January 2015

Accepted 20 Febr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Keon-Hoo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kkh630828@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에서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성매매 특별법 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단속된 성매매 위반 행위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성 구매 자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성 구매에 대한 자제가 2013년에 78.3%로 나타나 2006년의 76.9%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조사의 응답자 중에서도 56.7%는 실제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1].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함에 따라 성 개방 풍조가 더욱 확산되면서 성 문제가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표면화될 것이고, 성에 대한 태도도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2]. 이런 현상은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불러 일으켜 불건전한 성 태도를 형성하여 성매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성매매에 대해 국민의 93.1%가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성매매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성에 대한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은 성 구매 행위에 대한 통제로 작용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문제는 더 이상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제도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심리적 요인 내지 비공식적 제제도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는 성매매는 법률의 제정을 통한 공식적인 억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주변의 시선 내지 인식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억제도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4].

더욱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신적적으로

로 건강한 경우에는 성 관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4].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들은 성에 대한 대처, 성매매 등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에 따라 크게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3], 실제로 이은진(2009)의 연구[7]에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성매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무배우자들은 법률적, 도덕적 차원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인식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파트너와의 성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갖거나, 술자리와 접대 등의 집단적 차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5]. 이러한 무배우자들의 성매매는 정신적·심리적 애정을 동반하지 않으며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애정관계나 가족관계의 해체가 없다[3]는 이유 등으로 그들의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아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배우자들의 성 구매 행동을 파악해야 하며,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 대처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5,8]. 하지만, 지금까지 성매매와 관련하여 무배우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4,8,9], 법학 분야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한 연구[5,6] 등이 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이 그들의 성매매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남성들의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성이라는 원초적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본인 의사에 반한 퇴직과 가족 내에서의 위상 실추 등으로 인해 그들의 불안 심리와 좌절감은 만연해져 성에 대해 보다 의존해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14]. 사회적으로 성 문제를 음성화하고 성적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1)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해에 6,425건이 단속되었고, 2013년에도 7,53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 성범죄,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9]. 최근에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의 특성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정진경·양계민(2003)의 연구[12]에서는 남성들의 성 태도가 성매매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그들의 성매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태완(2014)의 연구[5]에서는 남성의 성욕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의 전통적인 남성성은 성매매와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매매 문제는 그들의 성 대처행동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은 성적 욕구를 통제 혹은 표현함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대처방식을 의미한다[8]. 이러한 대처방식은 남성들의 신체적·심리적인 특성 및 성 가치관, 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도 사회적 편견 내지 주위의 시선 때문에 성적 욕구를 의도적으로 억제하여 성적 욕구 표출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개방화된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성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성 가치관이 반영되어 자신의 욕구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남성들의 성 행동과 표출방식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13].

혼자 생활하는 남성들이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달래고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들의 개방적인 성 태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자신감을 부여하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7]. 하지만, 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 의사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불법적인 성매매에 대해 주저하거나 고민하게 된다. 더욱이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의 불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주위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거나, 그 행위결과로 인한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이 예상될 때는 그 행위를 삼가게 된다[14]. 현실적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캠페인을 전

개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특정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당한 욕구해소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는 저변문화가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6]. 또 한편으로는 성매매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그 모든 요인을 제거 또는 차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들이 공식적 제재를 알지 못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처벌의 객관적 위협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성매매는 지속될 것이다.

Paternoster et al.(1983) 연구[10]에서는 억제의 개념을 사회 내에서의 엄격한 법적·공식적 제재를 넘어선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가족과 친구의 비난,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의무와 같은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식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공식적 억제는 양심과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의 관계 유지 및 그들의 비난을 포함한 비공식적 제재에 의해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11]. 더욱이 남성들의 성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심리적 욕구는 물론,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속성을 보이므로[12] 성매매 문제 역시 개인의 특성은 물론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공식적 통제는 물론 범죄억제에서의 비공식적 요인까지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만혼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 욕구 표현이 불법적인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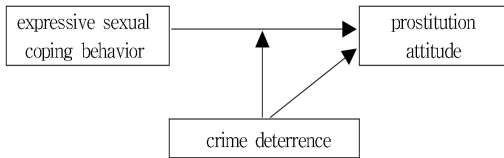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은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남성들이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업체 및 지역복지관 등을 찾아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4년 6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2014년 10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27부를 배포하여 302부가 회수(회수율: 92.3%)되었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8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임순(2006)[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 또는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한다', '성행위 장면을 상상한다', '성행위가 묘사되는 영화를 본다' 등의 표현적 대처행동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적 표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임순(2006)[13] 연구에서 표현적 성 대처행동의 Cronbach's α 값이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기 위해서 한성일(2013)[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경찰에 적발될 것이다', '사회에서 성을 사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등의 공식적 억제 6문항과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가족,

친구와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등의 비공식적 억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와 관련하여 한성일(2013)의 연구[6]에서 Cronbach's α 값은 공식적 억제 영역 .96, 비공식적 억제 영역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억제 영역 .74, 비공식적 억제 영역 .8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성매매를 할 것이다'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10점의 보기가드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 및 성매매 태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성매매 태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 및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 대처행동 및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성 대처행동과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28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1세 이상~50세 이하' 82명(28.7%), '31세 이상~40세 이하' 78명(27.3%), '51세 이상~60세 이하' 71명(24.8%)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시 지역'이 155명

(54.6%), '군 지역'이 129명(45.4%)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2년제) 졸업'이 84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 63명(22.3%), '고등학교 졸업' 55명(19.4%)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8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체로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9명(21.2%)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3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5명(23.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5명(72.7%)이었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내지 모임 등의 사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51명(53.4%)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	%
Age(Yr) (n=286)	31~40	78	27.3
	41~50	82	28.7
	51~60	71	24.8
	≥ 61	55	19.2
Area (n=284)	country	129	45.4
	city	155	54.6
Education level (n=283)	middle	53	18.7
	high	55	19.4
	college	84	29.7
	university	63	22.3
	graduate school	28	9.9
Healthy status (n=278)	very bad	57	20.5
	bad	59	21.2
	so-so	78	28.1
	good	59	21.2
	very good	25	9.0
Economic status (n=280)	very bad	52	18.6
	bad	65	23.2
	so-so	93	33.2
	good	36	12.9
	very good	34	12.1
work (n=282)	no	77	27.3
	yes	205	72.7
social participation (n=283)	no	132	46.6
	yes	151	53.4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우선, 표현적 성 대처행동

은 3.13(SD=.729)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에서 공식적 억제는 2.88(SD=.962)이었고, 비공식 억제 2.95(SD=.767)로 나타나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6.81(SD=1.503)로 나타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대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3.13(.729)	1.00	5.00
crime deterrence	official	2.88(.962)	1.00	5.00
	unofficial	2.95(.767)	1.00	5.00
prostitution attitude		6.81(1.503)	5.00	9.00

조사대상자들의 성매매 태도에 대하여 집단별 수준 및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p<.05$), 교육수준($p<.01$), 건강상태($p<.01$), 근로활동 여부($p<.0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내지 단체 등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p<.01$) 등에 따라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시 지역이 6.99(SD=1.45) 이어서 군 지역의 6.62(SD=1.54)보다 더 높았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094, p<.05$).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대학교 졸업'한 집단이 6.56(SD=1.58)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7.39(SD=1.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474, p<.01$).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각각 7.12(SD=1.64), 6.99(SD=1.2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6.48(SD=1.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257, p<.01$).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근로활동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6.97(SD=1.50)로 나타나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6.38(SD=1.43)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953, p<.01$). 사회활동 여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사회활동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

우에 7.15(SD=1.49)로 나타나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6.53(SD=1.46) 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491, p<.01$).

<Table 3>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M(SD)	t/F
Age(Yr) (n=286)	31~40	6.78(1.49)	.754
	41~50	6.88(1.53)	
	51~60	6.79(1.30)	
	≥ 61	6.80(1.14)	
Area (n=284)	country	6.62(1.54)	-2.094*
	city	6.99(1.45)	
Education level (n=283)	middle	7.39(1.41)b	4.474**
	high	6.90(1.56)ab	
	college	6.65(1.32)a	
	university graduate school	6.56(1.58)a 6.64(1.44)a	
Healthy status (n=278)	very bad	6.48(1.34)a	4.257**
	bad	6.67(1.15)a	
	so-so	6.69(1.51)a	
	good	7.12(1.64)b	
Economic status (n=280)	very bad	6.99(1.29)ab	1.872
	bad	7.03(1.61)	
	so-so	6.90(1.47)	
	good	6.73(1.57)	
work (n=282)	no	6.93(1.14)	-2.953**
	yes	6.88(1.14)	
social participation (n=283)	no	6.38(1.43)	3.491**
	yes	6.97(1.50)	

* $p<.05$, ** $p<.01$

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r=.171, p<.05$), 근로활동 여부($r=.212, p<.01$), 표현적 성 대처행동($r=.324, p<.01$)은 성매매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r=-.146, p<.05$), 사회활동 여부($r=-.196, p<.01$),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r=-.297, p<.01$), 비공식적 억제($r=-.208, p<.01$)는 성매매 태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배우자 남성들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강할수록,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성매매를 관대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4.4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배우자 없는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모델 I에서는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활동 참여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모델 II에서는 표현적 성 대처행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 III에서는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비공식적 억제를 각각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IV에서는 성 대처행동과 범죄억제에 대한 하위요인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모델 I에서는 교육수준($\beta=-.133, p<.05$), 건강상태($\beta=.157, p<.05$), 근로활동 여부($\beta=.249, p<.01$), 사회활동 참여 여부($\beta=-.223, p<.01$) 등이 그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F=5.333, p<.001$).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beta=-.119, p<.05$), 건강상태($\beta=.149, p<.05$), 근로활동 여부($\beta=.236, p<.01$), 성 대처행동($\beta=.371, p<.001$) 등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서 8.9% 유의미하게 증가한 17.7%로 나타났다($F=9.102, p<.001$). 모델 III에서는 교육수준($\beta=-.120, p<.05$), 건강상태($\beta=.146, p<.05$), 근로활동 참여 여부($\beta=.231, p<.01$), 사회활동 참여 여부($\beta=-.189, p<.01$), 표현적 성 대처행동($\beta=.334, p<.001$),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beta=-.315, p<.001$) 및 비공식적 억제($\beta=-.220, p<.01$) 등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 III의 설명력은 모델 II에서 13.7% 유의미하게 증가한 31.2%로 나타났다($F=14.271, p<.001$). 마지막으로 모델 IV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beta=-.117, p<.05$), 건강상태($\beta=.141, p<.05$), 근로활동 여부($\beta=.212, p<.01$), 사회활동 참여 여부($\beta=-.184, p<.01$), 표현적 성 대처행동($\beta=.321, p<.001$),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beta=-.288, p<.01$)

및 비공식적 억제($\beta=-.170, p<.01$)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현적 성 대처행동과 범죄억제 요인 하위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공식적 억제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beta=-.142, p<.05$)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Ⅳ의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2.9% 유의미하게 증가한 33.7%로 나타났다($F=13.138,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28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유배우자 남성들의 성매매 인식을 측정한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난[14] 것이므로 이들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활동 여부, 표현적 성 대처행동, 범죄억제 인식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억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현적 성 대처행동,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 근로활동 여부 등이 성매매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은 표현적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ategories	age	area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work	social participation	expressive behavior	crime deterrence	
									official	unofficial
prostitution attitude	-.085	-.082	-.146*	.171*	-.074	.212**	-.196**	.324**	-.297**	-.208**

dummy variable: area(country-0), work(no-0), social participation(no-0)

*p<.05, **p<.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ttitude

Categor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VIF
age	-.114	-2.121	-.111	-2.098	-.097	-1.967	-.085	-1.883	1.113
area	.107	2.081	-.105	-2.064	-.091	-1.871	-.093	-1.934	1.150
education level	-.133	-2.419*	-.119	-2.202*	-.120	-2.235*	-.117	-2.159*	1.060
health status	.157	3.031*	.149	2.838*	.146	2.794*	.141	2.688*	1.059
economic status	-.090	-1.808	-.084	-1.829	-.081	-1.785	-.077	-1.682	1.063
work	.249	4.526**	.236	4.287**	.231	4.198**	.212	3.921**	1.126
social participation	-.223	-4.056**	-.208	-3.870**	-.189	-3.563**	-.184	-3.554**	1.103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371	5.812***	.334	5.448***	.321	5.273***	1.202
crime deterrence	official				-.315	5.184***	-.288	-4.832**	1.191
	unofficial				-.220	-4.012**	-.170	-3.399*	1.137
expressive*official							-.142	-2.705*	1.492
expressive*unofficial							-.103	-2.034	1.370
R ²	.111		.199		.336		.364		
Adj. R ²	.090		.177		.312		.337		
ΔR^2			.089***		.137***		.029**		
F	5.333***		9.102***		14.271***		13.138***		

dummy variable: area(country-0), work(no-0), social participation(no-0)

*p<.05, **p<.01, ***p<.001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표현적 성 대처행동과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의 상호작용 항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높을수록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정도가 낮아지며, 반대로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낮을수록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배우자 남성들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높은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으며(주효과),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강한 경우에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완충효과)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높은 경우에는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다소 높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관대함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식적 억제에 대한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관련 규정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 정신적 충격 및 피해 등을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14]. 또한, 비공식적 제재도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배우자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엄격히 함으로써 올바른 성행동 접근을 도모하고 음성적인 아닌 실제적이고 개방적인 성 행동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급함으로써 [15] 성매매 행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개별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가족경험의 왜곡, 소외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19]. 나아가 성매매가 일어나는 환경을 개선하고 성매매를 하는 업주 및 여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표현 수준도 보통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무배우자 남성 집단을 위한 전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올바른 성 교육 표현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성 지식은 성 태도, 성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16],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책임성 있는 성적 행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더라도 성을 육체적 성 관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감으로 다루어야 하고, 다양한 표현방법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되며[17], 나아가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매매 정당성에 대한 태도 변화 등에 초점을 둔 커뮤니케이션 전략[18]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에서의 건전한 성 문화 및 회식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음주문화는 가정 폭력 및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가족 해체를 초래하거나, 조직 차원의 집단적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인 병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의 회식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도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서적 조절 내지는 성적 자극을 수용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무배우자 남성들은 유배우자 남성들보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보다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에 대한 표현 역시 보통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실증적 분석을 통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무배우자의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배우자들의 범죄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을 통해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보고하였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혼, 만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독거생활을 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그들의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가족과의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무배우자들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올바른 성 대처행동을 확립하고,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은 물론,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나아가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의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대전 등의 일부 지역 무배우자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배우자 없는 남녀를 비교해 보거나, 무배우자가 된 이유 등을 기준으로 각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무배우자들의 성매매 태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is a follow-up study was conducted in the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Prostitution Attitude of Men"(2015).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 on Prostitution. 2014.
- [2] Y. H. Ju, E. S. Jung & M. S. Shin,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 267-278, 2013.
- [3] S. J. Back, The recognition of man on prostitution and anti-prostitution law.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9, pp. 39-84, 2008.
- [4] I. S. Na, A Study on the Sexual Problems of the Elderly in the Ageing Society and the Alternativ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2 No. 1, pp. 123-139, 2005.
- [5]. T. W. Kim,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prostitution attitudes of males experiencing of sex buying. *Journal of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Vol. 33, pp. 117-143, 2014.
- [6] S. I. Han, Factors of Buying Sex : a Test of Expanded Deterrence Theory and Perception of Prostitution.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Vol. 1, pp. 137-154, 2013.
- [7] E. J. Lee,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Men's Thinking and attitudes on Prostitution and Gende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5 No. 3, pp. 377-389, 2009.
- [8] Y. S. Bang & K. M. Nam, The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Need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6, pp. 215-238, 2009.
- [9] M. S. Jung & I. S. Na,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to educate the sexuality counsellors for the aged.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3, pp. 189-213, 2004.
- [10] Paternoster, R., P. Gordon & G. C. Theodore,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Law and Society Review*, Vol. 17, pp. 457-480, 1983.
- [11] Paternoster, R., P. Assessments of risk and behavioral experience, *Criminology*, Vol. 23, pp. 417-436, 1985.
- [12] J. K. Chung & K. M. Yang, Factors Constructing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 Prostitu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8, No. 3, pp. 53-75, 2003.
- [13] I. S. Na,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6, No. 3, pp. 547-563, 2006.
- [14] B. J. Jeon & S. Y. Yoon,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Prostitution Attitude of 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 pp. 159-170, 2015.

- [15] M. H. Nam & J. M. Kim,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health behavior, sexu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 4, pp. 367-378, 2014.
- [16] M. S. Kim,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Behavior of a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0, No. 5, pp. 252-258, 2010.
- [17] S. H. Shin & H. J. Park, Effect of Sexual Attitude of Aged People on Sexual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6, No. 3, pp. 320-329, 2014.
- [18] S. E. Jo & H. C. Shin, A Study of Campaign for Preventing Prostitution : The Predictors on Youth Behavioral Intention of Prostitu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4, No. 1, pp. 228-251, 2010.
- [19] T. H. Koo & D. Y. Song, Influence of Family in the Process of Engaging in and Escaping from Prostitution. Family and culture, Vol. 24, No. 1, pp. 105-138, 2012.

전 병 주(Jeon, Byeong Joo)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 노인복지
- E-Mail : okbj@cbnu.ac.kr

김 건 호(Kim, Keon Hoo)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1995년 3월 ~ 2006년 2월 : 변호사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2006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법조윤리, 민사소송, 도산
- E-Mail : kkh630828@hanmail.net